

관계 친밀도에 따른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의 효과*

박 찬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공감을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현상으로 규정하고, 관계 친밀도 수준에 부합하는 공감이, 부합하지 않는 공감에 비해서, 관계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험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예비 실험에서는 관계 친밀도 수준에 부합하는 공감 특성에 관한 대학생들의 상식이론을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 공감의 깊이로 공감 특성을 조작하였다. 실험 1에서는 공감이 발생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관계 친밀도(친구/지인)와 공감 특성(깊은 공감/얕은 공감)을 조작하여 기대-일치 공감(친구-깊은 공감, 지인-얕은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친구-얕은 공감, 지인-깊은 공감)에 따른 관계 만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기대-일치 공감 조건에서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보다 공감 대상자의 관계 만족이 높았다. 또한 친구 조건에서는 얕은 공감보다 깊은 공감이 공감 대상자에게 높은 수준의 관계 만족을 유발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공감자의 관계 만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공감자의 관계 만족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장래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 친밀도, 공감, 기대-일치 공감, 관계 만족, 정서

* 본 논문은 박찬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 E-mail: hchoi@skku.edu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공감(共感)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Ickes, 1993), 타인에 대한 공감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Davis, Conklin, Smith, & Luce, 1996; 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감을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 정서, 의도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Davis et al., 1996; Davis, Soderlund, Cole, Gadol, Kute, Myers, & Weihing, 2004). 인지적 공감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고(예: Galinsky, Ku, & Wang, 2005),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며(예: Galinsky & Ku, 2004; Galinsky & Moskowitz, 200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조형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예: Galinsky, Wang, & Ku, 2008; Ku, Wang, & Galinsky, 2010).

한편,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공유하거나 타인이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Eisenberg & Miller, 1987). 정서적 공감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시도를 통해서 곤경에 처해있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은 도움행동과 같은 이타적 행동을 촉진함을 알아냈다(예: Batson, 1987, 1994; 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Baston, Early, & Salvarani, 1997; Batson, O'Quin, Fultz, Vanderplas, & Isen, 1983; Toi & Batson, 1982).

공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대인관계에서 공감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기여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감 현상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심적 상태이며(Hodges & Wegner, 1997), 공감이 발현될 때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정서적 반응이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Kerem, Fishman, & Josselson, 2001). 따라서 공감의 인지적 처리특성과 정서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은 공감 현상을 연구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 추론과 일관되게, 공감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공감자의 정서적 반응만으로 도움행동의 발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예: Batson, Sager, Garst, Kang, Rubchinsky, & Dawson, 1997)와 그렇지 않다는 증거(예: Cialdini, Brown, Lewis, Luce, & Neuberg, 1997)가 혼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 간 상호작용 역사나 친분이 없는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공감 행위가 발생하는 대인관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인지적 공감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주로 고정관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정 집단(예: 노인, 흑인, 중년 여성 등)의 구성원을 공감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예: Davis et al., 1996; Davis et al., 2004; Galinsky et al., 2005; Galinsky et al., 2008; Ku et al., 2010). 정서적 공감을 다룬 선행 연구들 역시 실험 참가자와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예: 소녀 가장)에 대한 공감을 다루었을 뿐(예: Batson et al., 1981; Batson, Klein, Highberger, & Shaw, 1995; Batson, Sager et al., 1997; Coke, Batson, & McDavis, 1978; Toi & Batson, 1982), 공감자와 특정 관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의 발현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이러한 기존 접근법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 역사나 친분이 있는 상대에 대한 공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 간 관계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관계 친밀도를 중심으로 공감의 대인관계 맥락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해당 관계 특성에 부합하는 공감 특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를 근간으로, 친밀한 관계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기대되거나, 기대되지 않는 공감 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해당 관계 특성에 부합하는 기대-일치 공감이, 그렇지 않은 기대-불일치 공감에 비해서, 대인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을 유발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 절에서는 관계 친밀도와 공감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 연구의 가설이 도출된 배경을 제시한다.

관계 친밀도에 따른 기대-일치 및 기대-불일치 공감과 관계 만족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 간의 관계는 공감이 일어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참조: Hodges, Kiel, Kramer, Veach, & Villanueva, 2010; Stinson & Ickes, 1992).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중시되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크게 영향 받는 동양 문화의 특성(Markus & Kitayama, 1991)과 상대방과의 관계 특성이 개인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한규석, 최상진, 2008)을 고려하면, 공감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 간의 관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인관계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 가운데 관계의 친밀도 수준이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조궁호, 2008; 최상진, 2000; 한규석, 최상진, 2008; 한덕용, 2003)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관계 친밀도가 공감의 발현 및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장면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일반화시킨 대본(script)을 관계 도식 내에 지니고 있다(Baldwin, 1992). 또한 동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서로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이러한 가치와 이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태도, 선호, 및 정서반응에서 보편적 경향성으로 발전한다(Kim & Markus, 1999). 따라서 동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대본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감의 경우에도 공감이 발생하는 대인관계 맥락에 따라서 전형적 공감 방식을 규정하는 인지 도식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를 대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양 문화권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조궁호, 2008), 사회적 맥락과 타인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적합한 공감 특성을 규정하는 세분화되고 정밀한 대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타인의 관점을 취하여 공감하는 행위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인간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전략(Galinsky et al., 2005)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개인들이 각기 달리 지니고 있는 공감 대본 역시 이러한 전략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해당 관계에 부합하는 공감 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친밀도가 높은 관계와 낮은 관계에서 각각 기대되거나 기대되지 않는 공감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토대로,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각기 달리 조형되는 기대에 부합하는 공감 특성을 기대-일치 공감으로, 그리고 부합하지 않는 공감 특성을 기대-불일치 공감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서, 기대-일치 공감이 기대-불일치 공감에 비해서 공감 대상자와 공감자 모두에게서 높은 수준의 관계 만족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적절한 공감 특성이라고 여기는 일종의 공감 대본을 관계도식 내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처럼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세분화된 대본은 대인 상호작용 장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자신과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는 공감이 이루어질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론은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상호작용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가 조형됨을 시사하는 일부 연구들과도 일관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인보다는 친한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원하며(허태균, 김일도, 서에스더, 2009, 실험2), 친구에게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최상진, 김기범, 1999),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걱정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이 강하며,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때 심정이 상한다’고 보고하였다(손영미, 최상진, 1999). 이와 유사하게 서구에서 보고된 일부 연구(예: Fehr, 2004)에서도, 상대방이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전형성을 규정하는 대본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면, 친밀도가 높은 대상(예: 절친한 친구)과 낮은 대상(예: 지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감 대본이 각기 다르며, 해당 관계 맥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감이 일어날 경우 공감 대상자의 관계 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공감자가 공감 장면에서 느끼는 관계 만족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예상이 가능하다. 즉, 공감자

가 공감 대상자에게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해주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공감 대본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감자는 공감 대상자 역시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인관계들 가운데 친밀도가 높은 관계로 절친한 친구 관계를,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친밀도가 낮은 관계로 지인 관계를 선정하였다. 친구 관계는 친밀 관계에 관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다루었으며(참조: 김기범 등, 2002; Malle & Pearce, 2001; Shah, 2003; Stinson & Ickes, 1992), 개인의 삶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관계들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참조: Fehr, 200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인이란 친분이 전혀 없는 낯선 타인과는 구분되는 대상으로, 절친한 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친분이 적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게 지각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구분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절친한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서 각각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공감 특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각 관계에서 기대되는 공감(기대-일치 공감)과 그렇지 않은 공감(기대-불일치 공감)에 따라서 공감 대상자와 공감자의 만족이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1개의 예비 연구와 2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예비 연구에서는 관계 친밀도가 높은 친구 관계와 그렇지 않은 지인 관계에서 각각 우세하게 발현되는 공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공감에 대한 상식이론(layer theory)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각각 부합하는 공감 특성을 구성하여 실험 1과 실험 2를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는 예비 연구를 바탕으로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을 직접 조작하여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공감이 공감 대상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실험 2는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공감이 공감자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예비 연구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에 따라서 관계 만족이 달리 나타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친밀도가 높거나 낮은 대인관계에 각각 부합하는 공감 특성을 알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 연구에서는 친밀도가 높거나 낮은 관계에 부합하는 공감 특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식이론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4년제 대학교 학부생 총 99명(남학생 46명, 여학생 53명)이 실험참가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은 20.71세($SD=2.50$), 여학생은 19.83세($SD=1.69$)였다.

절차

한 회기 당 2명에서 4명까지 동시에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을 자리로 안내한 후 타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라고 연구목적을 꾸며서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서 동성 친구 또는 동성 지인을 마음에 떠올리고, 자신이 마음에 떠올린 사람에게 공감을 하는 가상의 제시문을 읽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제시문에 묘사된 장면을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였고, 상식이론을 탐색하기 위

해 사전에 구성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관계 친밀도 조작점검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동성의 친구(지인)를 떠올린 이후 ‘평소 그 친구(사람)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그 친구(사람)는 평소 참가자를 얼마나 가깝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9점 척도(1=‘전혀 가깝지 않다’, 9=‘매우 가깝다’)에 응답하였다. 또한 IOS 척도(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ron, Aron, & Smolland, 1992)를 사용하여 참가자가 마음에 떠올린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4개의 보기(1=‘전혀 친하지 않음’, 4=‘매우 친함’)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친구 조건에서는 ‘절친한 친구’, 지인 조건에서는 ‘절친한 친구가 아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해당 관계를 명시하고, 각 관계에서 바람직한 공감 방식(예: ‘어떠한 방식의 공감이 바람직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까?’)과 공감의 본질(예: ‘공감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을 묻는 개방형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에서 친구-지인 조작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6명(친구 조건, 지인 조건 각 3명)을 제외한 총 93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의 성별은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조작점검 문항 각각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 친구 조건의 참가자들이($M=8.26$) 지인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48$) 자신들이 떠올린 그 사람과 친밀하다고 느꼈다, $F(1, 91)=253.27$, $p<.001$, $\eta^2=.74$. 또한 친구 조건의 참가자들이($M=8.12$) 지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M=4.52$)

자신이 떠올린 사람이 자신을 더 가깝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F(1, 91)=178.36, p<.001, \eta^2=.66$. IOS 척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각각 $M=3.94, 2.43$), $F(1, 91)=317.39, p<.001, \eta^2=.78$.

사회심리학을 전공하는 1인의 대학원생이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들 중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끼리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유사한 범주들을 하나의 상위 범주로 재범주화 하여 최종 범주를 결정하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범주명을 생성하였다. 확정된 범주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확정된 범주를 기준으로 또 다른 평정자 1인이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류하였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응답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최종 범주를 결정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Cohen's $k=.76$ 으로 높았다, $p<.001$.

분석 결과, 지인에 대한 공감의 주요 특징으로는 '피상적 표현 및 정도 지키기' 범주에 해당

하는 응답이 전체의 26.79%로 가장 많았다(예: '이해하는 척 하기', '인간관계 유지에 필요한 요소', '서로 존중하는 것',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음' 등). 이에 비해서, 친구에 대한 공감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점 취하기/인지적 노력'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이 21.48%로 가장 많았다(예: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내 생각에 대해 예상해 보는 것' 등). 또한, 친구에 대한 공감에서 많은 응답(20.77%)을 차지한 '신뢰/열린 마음/애정' 범주(예: '친구에 대한 사랑', '상대를 수용하는 것',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기' 등)는 지인에 대한 공감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8.93%)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 친밀도에 따른 공감의 상식 이론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는 점은 '공감의 깊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인 관계 공감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정도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표 1. 공감의 특성에 대한 범주

순위	지인	비율(%)	친구	비율(%)
1	피상적 행위/존중/정도 지키기	26.79	관점취하기/인지적 노력	21.48
2	정서 이해/공유/지지	10.27	신뢰/열린 마음/애정	20.77
3	신뢰/열린 마음/애정	8.93	정서 이해/공유/지지	15.85
4	공통경험 바탕	8.04	경청	7.39
5	친분형성과정	7.14	공통경험 바탕	7.04
6	관점취하기/인지적 노력	6.70	의견제시/문제해결	6.34
7	경청	4.91	잡은 교류/함께 시간 보내기	2.82
8	의견제시/문제해결	4.46	친분형성과정	2.46
9	당위/예의	3.13	피상적 행위/존중/정도 지키기	2.11
10	한계가 있는 사고	3.13	당위/예의	2.11
11	자기초점적 사고	2.23	자기초점적 사고	1.76
12	잡은 교류/함께 시간 보내기	1.34	한계가 있는 사고	0.70
13	기타	12.95	기타	9.15
계		100.00		100.00

다. 반면에 친구 관계 공감에서는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이해하고,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는 사회침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 Altman & Taylor, 1973)과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사회침투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점진적인 발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관계 초기에는 자기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비교적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측면을 나타내 보이다가 관계가 진행 될수록 사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드러낸다. 사회침투이론에서는 이를 침투의 ‘깊이(depth)’로 정의한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 연구를 기반으로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깊은 수준의 공감은 기대-일치 공감으로, 얕은 수준의 공감은 기대-불일치 공감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지인 관계에서 깊은 수준의 공감은 기대-불일치 공감으로, 얕은 수준의 공감은 기대-일치 공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감이 발생하는 가상의 상황에서 공감 대상자에 대한 공감자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합일감(feelings of oneness)의 표현 정도와 거리두기 정도를 통하여 공감의 특성을 조작하였다. 즉, 깊은 공감 조건에서는 공감자가 공감 대상자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얕은 공감 조건에서는 공감자가 공감 대상자에게 거리를 두고 정도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실험 1

실험 1에서는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을 조작하여 관계 친밀도에 따른 기대-일치 공감 조건과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을 구성하고, 각 조건에서 공감 대상자의 관계 만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대-일치 공감 조건에서,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보다, 공감 대상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4년제 대학 교학부생 59명(남자 26명, 여자 33명)이 실험 참가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한 회기에 5명에서 7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남자 22.38세($SD=2.47$), 여자 21.22세($SD=1.58$)였다. 이 중 연구자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1명의 참가자는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절차

2(관계 친밀도: 친구/지인) × 2(공감 특성: 깊은 공감/얕은 공감) 이원 참가자간 무선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한 회기 당 5명에서 7명의 참가자들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의 목적은 활자(text) 기반 정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이 타인을 인식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꾸며서 소개하고, 연구자가 제공하는 시나리오에서 묘사하는 상황에 깊게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계 친밀도 조작

실험 소개를 마친 후 상황 설명문을 제공하였다. 상황 설명문에는 A와 B 두 사람이 등장하며, 관계 친밀도 조건에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친한 친구 혹은 지인으로 소개되었다. A와 B의 관계 소개를 끝낸 후 시나리오 상에서 공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A가 공감자에 해당하는 B에게 작성한 것으로 소개된 e-mail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 e-mail은 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B에게 털어놓는 내용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진로고민과 관련이 높은 단어(예: ‘TOEIC’, ‘직업’, ‘행복’ 등)들을 선정한 후 이 단어들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E-mail 원본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공감 특성 조작

참가자들이 A가 작성한 e-mail을 읽은 후, B가 A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B의 답장을 제시하였다. 이때 공감자에 해당하는 B의 답장은 공감 특성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조사한 대학생들의 공감에 대한 상식이론을 반영하여, 얇은 공감 조건에서는 공감자에 해당하는 B가 공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A에게 거리를 두고 정도를 지키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깊은 공감 조건에서는 B가 A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B가 작성한 것으로 소개한 답장 원본은 부록 2와 3에 수록하였다.

사후 질문지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상에서 B가 A에게 작성한 답장을 읽은 후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 때 참가자들 자신이 실제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공감 대상자인 A라고 상상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질문지는 주 종속변수인 관계 만족을 측정하고 정서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후 의혹점검을 실시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관계 만족

참가자들 스스로 공감 대상자인 A의 입장에서 'B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3개(예: '나는 B가 예전보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나는 B와 지금보다 더 잘 지내고 싶어진다', '나는 B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를 9점 척도(1='전혀 아니다', 9='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정서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을 경험할 때 참가자들에게 발현되는 정서를 탐색할 목적으로 '기쁘다', '든든하다', '편안하다', '서운하다', '슬프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당황스

럽다'를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제시하고, 참가자들 스스로 공감 대상자인 A의 입장에서 B의 답장을 읽으면서 해당 정서를 경험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결 과

실험재료 점검

관계 친밀도

본 실험 참가자들과 동일한 모집단에서 선정된 별도의 학부생 39명(남자 20명, 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험 1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에 사용할 시나리오의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 조건의 참가자들이($M=7.48$) 지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M=5.17$)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두 사람(A, B)이 서로 가까운 사이라고 응답하였다, $F(1, 37)=24.61, p<.001, \eta^2=.40$. 또한 IOS 척도에서도 친구 조건의 참가자들이($M=3.62$) 지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M=2.39$) A와 B의 관계가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F(1, 37)=48.32, p<.001, \eta^2=.57$.

공감 특성

시나리오에서 공감자에 해당하는 B가 공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A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여겨지는 합일감 정도를 묻은 3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alpha=.87$). 관계 친밀도(친구/지인)와 공감 특성(깊은 공감/얇은 공감)의 이원 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02$) 얇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3.70$) 공감자인 B가 공감 대상자인 A에 대해서 합일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F(1, 35)=18.11, p<.001, \eta^2=.34$. 관계 친밀도의 주효과와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거리두기의 경우, B가 A에게 거리를 두려는 정도를 측정된 3개 문항의 평균($\alpha=.86$)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얇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06$)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37$) B가 A에게 거리를 두고 정도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1, 35)=11.92, p<.01, \eta^2=.25$. 관계 친밀도의 주효과와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 만족

관계 만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평균($a=.95$)에 대하여 관계 친밀도(친구/지인)와 공감 특성(깊은 공감/얇은 공감)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72$) 얇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47$)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F(1, 54)=34.88, p<.001, \eta^2=.39$. 그러나 이 주효과는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해석에 제약을 받는다, $F(1, 54)=11.01, p<.01, \eta^2=.17$.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친구 조건에서는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7.29$) 얇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3.64$)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F(1, 54)=41.12, p<.001$. 반면에, 지인 조건에서는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과($M=6.20$) 얇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 간에($M=5.18$) 관계 만족에서 차이가 없었다, $F(1, 54)=3.47, p=.07$. 한편 공감 특성에서 관계 친밀도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인 조건에서 얇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M=5.18$) 친구 조건에서 얇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M=3.64$)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F(1, 54)=6.79, p<.05$. 반면에, 지인 조건에서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과($M=6.20$) 친구 조건에서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M=7.29$) 지각한 관계 만족에는 차이가 없었다, $F(1, 54)=3.25, p=.08$.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부합 효과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대-일치 공감 조건(친구-깊은 공감 조건, 지인-얇은 공감 조건)과 기

대-불일치 공감 조건(친구-얇은 공감 조건, 지인-깊은 공감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대-일치 공감 조건과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으로 실험조건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기대-일치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20$)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97$)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였다, $t(56)=2.47, p<.05$.

정서

개별 정서문항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기쁨’과 ‘든든함’, ‘슬픔’과 ‘서운함’, 그리고 ‘불편함’, ‘당황스러움’, ‘부담스러움’ 문항 간의 상관이 높았다. 따라서 ‘편안함’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상관이 높은 문항들 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정서에 대한 기술평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든든함

기쁨과 든든함에 대한 참가자들 응답의 평균($r=.75$)에 대하여 관계 친밀도(친구/지인)와 공감 특성(깊은 공감/얇은 공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M=4.93$) 얇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M=2.69$) 든든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54)=57.72, p<.001, \eta^2=.52$.

편안함

편안함에 대한 참가자들 응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M=4.86$) 얇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M=3.31$) 편안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54)=22.15, p<.001, \eta^2=.29$. 또한 친구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M=4.39$) 지인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3.80$) 편안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54)=3.16, p=.08, \eta^2=.06$.

표 2. 정서 평균(표준편차)

		깊은 공감 M(SD)	얕은 공감 M(SD)	전체 M(SD)
든든함	친구	5.29(1.00)	2.43(0.81)	3.86(1.70)
	지인	4.60(1.30)	2.93(1.32)	3.77(1.54)
	전체	4.93(1.19)	2.69(1.11)	3.81(1.61)
편안함	친구	5.43(1.16)	3.36(1.28)	4.39(1.60)
	지인	4.33(0.98)	3.27(1.58)	3.80(1.40)
	전체	4.86(1.19)	3.31(1.42)	4.09(1.51)
서운함	친구	2.21(1.09)	4.46(1.22)	3.34(1.61)
	지인	2.03(0.77)	2.97(1.48)	2.50(1.25)
	전체	2.12(0.92)	3.69(1.54)	2.91(1.49)
부담스러움	친구	1.64(0.62)	2.40(1.13)	2.02(0.97)
	지인	3.40(1.39)	2.44(1.06)	2.92(1.31)
	전체	2.55(1.39)	2.43(1.07)	2.49(1.23)

서운함

슬픔, 서운함에 대한 참가자들 응답의 평균($r=.54$)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친구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M=3.34$) 지인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2.50$) 서운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고, $F(1, 54)=7.49, p=.01, \eta^2=.12$, 얕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M=3.69$)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M=2.12$) 서운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54)=26.94, p=.001, \eta^2=.33$. 그러나 이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해석에 제약받는다, $F(1, 54)=4.61, p=.04, \eta^2=.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에게 얕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M=4.46$)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2.21$) 서운함을 높게 보고하였고, $F(1, 54)=26.02, p<.001$,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M=2.97$)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2.03$) 서운함을 높게 보고하였다, $F(1, 54)=4.80, p<.04$.

부담스러움

불편함, 당황스러움, 부담스러움에 대한 참가

자들 응답의 평균($a=.72$)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 결과, 지인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M=2.92$) 친구에게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2.02$) 부담스러움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54)=9.85, p<.01, \eta^2=.15$. 그러나 이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해석에 제약을 받는다, $F(1, 54)=9.00, p<.01, \eta^2=.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과($M=1.64$) 친구에게 얕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M=2.40$) 간에는 부담스러움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F(1, 54)=3.42, p=.07$,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은($M=3.40$)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보다($M=2.44$) 부담스러움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54)=5.77, p<.05$.

논 의

실험 1에서는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공감에 따라서 공감 대상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이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의 공감 상황을 구성하여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을 조작하고 참가자들이 공감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관계 만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참가자들이 기대-일치 공감(친구/깊은 공감, 지인/얕은 공감)을 받을 때 기대-불일치 공감(친구/얕은 공감, 지인/깊은 공감)을 받을 때에 비하여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경우에는 기대-불일치 공감을 받을 때와 기대-일치 공감을 받을 때에 관계만족에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지인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 높은 관계 만족을 보고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나리오 상에서 공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A가 공감자에 해당하는 B에게 보낸 e-mail에서 A의 자기노출 정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과 친하지 않은 지인에게 높은 수준의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깊은 공감을 해준다면 비록 그것이 기대-불일치 공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지인에게 기대-불일치 공감을 받은 조건의 참가자들은 부담스러움뿐만 아니라 든든함과 편안함 정서 또한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깊은 공감의 조작효과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인으로부터 기대-불일치 공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함과 편안함 정서를 경험했다는 것은 기대-불일치 공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이 공감 특성이 지니는 차별적 효과를 측정할 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참가자들에게 비교적 일반적인 관계 만족을 묻고 있어서(예: '나는 B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등) 기대-불일치 공감이 지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탐색적으로 살펴본 정서의 경우, 깊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얕은 공감을 경험한 참가자들보다 긍정 정서(든든함, 편안함)를 강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부터의 강한 사회적인 지지를 지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친구에게 얕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 서운함을 강하게 경험하고,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받은 참가자들이 부담스러움을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함은 친구가 자신에게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담스러움은 지인 관계에서 적당히 유지해야 할 사회적 거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 2

실험 1은 공감 대상자가 경험하는 관계 만족과 정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감은 본연적으로 대인관계 사건이므로(Håkansson & Montgomery, 2002), 공감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감자의 심리경험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험 2는 공감자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공감이 일어날 때 공감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을 알아보았다. 실험 1과 동일한 논리로, 실험 2에서는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는 기대-일치 공감을 제공한 공감자들이, 기대-불일치 공감을 제공한 공감자들보다, 해당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4년제 대학교 학부생 총 52명(남자 41명, 여자 11명)이 실험참

가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23.96세($SD=2.75$), 여자 21.82세($SD=1.91$)였다.

절차

2(관계 친밀도: 친구/지인) × 2(공감 특성: 깊은 공감/얕은 공감) 이원 참가자간 무선요인 설계를 사용하였다.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다. 실험 2는 공감 대상자가 아닌 공감자의 심리경험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시나리오에 제시된 A와 B의 역할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즉, 참가자들은 공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B가 작성한 e-mail과 공감자에 해당하는 A가 작성한 답장을 읽고, 자신이 공감자인 A의 입장이라고 상상하면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실험 1에서 공감 대상자가 작성한 e-mail의 자기노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험 2에서는 e-mail의 내용을 축약하였고, 깊은 공감의 조작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감자인 A가 작성한 답장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측정도구

실험 1에서 측정된 종속변인들 외에 관계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실험 1에서 측정된 것과 동일한 종속변인의 경우에는 공감자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들의 문장 구조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관계 만족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관계 만족을 다양한 단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 1에서 사용한 3개 문항 중 2개를 선별하여 일부 수정하고, 그 외에 참가자들의 노력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예: '나는 B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다'), 관계기대를 측정하는 문항(예: '나는 앞으로 B가 나의 일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에게 의

지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2개 문항(예: '나도 B에게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B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다'), 상대방이 나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것이라 예상하는지를 측정하는 2개 문항(예: '나는 B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염려된다', '나는 B가 내가 보낸 답장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을 추가하여 9점 척도(1='전혀 아니다', 9='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정서

상대방에게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을 제공할 때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정서를 탐색할 목적으로 '기쁘다',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다행스럽다', '안심된다', '후회된다', '미안하다', '멋쩍다', '겸연쩍다', '어색하다'를 9점 척도(1='전혀 아니다', 9='매우 그렇다')로 제시하고 참가자들 스스로 A의 입장에서 B에게 답장을 쓰면서 해당 정서를 경험한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 정서 형용사들은 박인조와 민경환(2005),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빈도가 높고 강도가 강한 정서 중 공감 상황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정하였다.

결 과

관계 만족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8개 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들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alpha=.89$). 관계 친밀도(친구/지인)와 공감 특성(깊은 공감/얕은 공감)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친구 조건의 참가자들이($M=6.67$) 지인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91$)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했다, $F(1, 46)$

=22.20, $p < .001$, $\eta^2 = .33$. 또한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11$) 얕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5.40$)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F(1, 46)=3.95$, $p=.053$, $\eta^2=.08$. 그러나 이는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해석에 제약을 받는다, $F(1, 46)=4.43$, $p < .05$, $\eta^2=.09$. 관계 친밀도에서 공감 특성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M=7.43$)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보다($M=5.90$)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했다, $F(1, 46)=8.05$, $p < .01$. 한편 지인 조건에서는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과($M=4.89$)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M=4.93$) 간의 관계 만족에 차이가 없었다, $F < 1$. 공감 특성에서 관계 친밀도의 단순주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M=7.43$)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보다($M=4.89$)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했다, $F(1, 46)=22.70$, $p < .001$. 한편 친구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M=5.90$)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보다($M=4.93$)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064$.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부합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대-일치 공감 조건(친구-깊은 공감 조건, 지인-얕은 공감 조건)과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친구-얕은 공감 조건, 지인-깊은 공감 조건)으로 참가자들을 재분류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대-일치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13$) 기대-불일치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5.38$) 관계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48)=1.66$, $p=.11$.

정서

개별 정서문항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기쁨’, ‘뿌듯함’, ‘자랑스러움’, 그리고 ‘멋쩍음’, ‘겉

연쩍음’, ‘어색함’ 문항간 상관이 높았다. 따라서 ‘다행스러움’, ‘안심’, ‘미안함’, ‘후회’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상관이 높은 문항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뿌듯함

기쁨과 뿌듯함, 자랑스러움에 대한 참가자들 응답의 평균($a=.78$)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6.05$) 얕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4.56$) 뿌듯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48)=13.90$, $p < .01$, $\eta^2=.23$. 관계 친밀도의 주효과와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_s < 1$.

다행스러움

다행스러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이($M=5.31$) 얕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3.92$) 다행스러움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48)=5.40$, $p < .05$, $\eta^2=.10$. 관계 친밀도의 주효과와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_s < 1$.

후회스러움

후회스러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48)=5.44$, $p < .05$, $\eta^2=.10$.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은($M=4.00$)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보다($M=2.23$) 후회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48)=4.98$, $p < .05$. 반면에 친구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과($M=3.92$) 친구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M=3.08$) 간의 후회스러움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F(1, 48)=1.14$, $p=.30$.

어색함

멋쩍음, 겉연쩍음, 어색함에 대한 참가자들

응답의 평균($a=.93$)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인에게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 ($M=5.67$) 친구에게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보다 ($M=3.24$) 어색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46)=18.86, p<.001, \eta^2=.29$. 또한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M=5.17$)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보다($M=3.83$) 어색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F(1, 46)=6.03, p<.05, \eta^2=.12$.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46)=1.60, p=.21$. 그 외 안심스러움, 미안함 정서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고하였다.

한편, 깊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은 얕은 공감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뿌듯함과 다행스러움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의 고민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었다는 지각으로 인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이 후회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예의나 정도를 어겼다는 지각으로 인한 반응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논 의

실험 2는 관계 친밀도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공감에 따라서 공감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의 공감 상황을 구성하여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을 조작하고 참가자들이 공감자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관계 만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구에게 공감을 제공할 때는 기대-일치 공감이 기대-불일치 공감에 비해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인에게 공감을 제공할 때는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었다.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한 참가자들은 친밀도가 낮은 지인에게 적당한 사회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의 답장을 써주었다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공감의 특성상 관계 만족도를 높게 지각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감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지지 등을 경험할 여지가 있는 공감 대상자와는 달리, 지인에게 얕은 공감을 제공하는 공감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경험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보고한 정서는 이러한 해석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공감 대상자가 지인인 조건이거나, 제공한 공감의 특성이 얕은 공감인 조건의 참가자들은 어색함 정서를 높게 보고하였고 긍정적인 정서들은 낮게

종합논의

본 연구는 공감을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인간 과정으로 규정하고, 관계 친밀도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공감이 존재하며 개인들이 그러한 공감 특성에 관한 인지 도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 하였다. 그리고 이 가정에 근거하여 기대-일치 공감이 일어날 때 기대-불일치 공감이 일어날 때보다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가 지각하는 관계 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관계 친밀도에 따라 우세하게 지니고 있는 공감의 상식이론을 예비 연구에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험 1과 2에서 관계 친밀도와 공감 특성을 조작하여 관계 만족을 관찰하였다.

공감 대상자에 초점을 둔 실험 1에서는 가설과 일관되게 기대-일치 공감이 기대-불일치 공감보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친구 관계에서는 얕은 공감보다 깊은 공감이 관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얕은 공감은 친구 관계보다 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실험 2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는 얕은 공감보다 깊은 공감이 관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깊은 공감은 지인 관

계보다 친구 관계에서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 1과 2에서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기대-불일치 공감이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서 대칭적인(symmetrical)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불일치 공감이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서 모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대에 어긋나는 공감’이라고 하더라도 친구 관계에서는 실망스러움, 섭섭함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만 지인 관계에서는 부정적 정서 외에도 놀라움, 뜻밖의 기쁨 등의 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일관되게 지인에게 깊은 공감을 제공받은 참가자들은 높은 든든함과 편안함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공감 특성이 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관계 만족이라는 구성개념이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 만족은 본원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이므로 두 개인 간에 관계가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인 관계에서는 개인이 만족을 경험할 만큼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관계 만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공감 특성이 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에서의 관계 만족과 상응하는 수준의 구성개념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과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관계 친밀도에 따른 공감 특성의 차별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공감 대상자의 자기노출 정도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였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관계 친밀도에 따라 자기노출의 기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공감 대상자의 자기노출 수준을 조작하여 자기노출 정도에 부합하는 공감의 특성이 관계 만족이나 정

서 경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나 의사표현 방식, 성격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고 상호작용 역사도 길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방식의 깊은 공감과 얇은 공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깊은 공감과 얇은 공감을 조작하는 재료를 표준화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특정 이차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현상을 다루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친구 관계에 있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공감의 역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의 효과를 상세화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대인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 지각, 갈등, 도움행동 등에서 공감 특성의 효과를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다룬 정서의 경우, 정서의 정부성 혹은 특정 정서의 경험이 관계 만족을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심리경험에 대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기대-불일치 공감이 기대-일치 공감만큼 긍정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니는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관계 친밀도 외에도 다양하다(예: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기대의 원천에 따라서도 기대-일치 공감과 기대-불일치 공감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관계 특성이 반영된 공감 현상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장차 친교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하관계, 부부관계, 혹은 고정관념 보유자와 표적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현되는 공감의 특성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는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감에 대한 기대의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이 변수를 중심으로 공감의 문화적 차이를 다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한국인에게 진정한 친구는 의리 있는 친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79-101.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손영미, 최상진 (1999). 심정적 대화상황분석을 통한 심정심리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조궁호 (2008).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7.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허태균, 김일도, 서에스더 (2009). 내맘 알지?: 마음읽기 기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4-165.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 Aron, A., Aron, E. N., & Smolland,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atson, C. D. (1987). Prosocial motivation: Is it ever truly altruistic?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65-12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tson, C. D. (1994). Why act for the public good? Four answ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603-610.
- Batson, C. D., Duncan, B.,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0-302.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51-758.
- Batson, C. D., Klein, T. R., Highberger, L., & Shaw, L. L. (1995). Immorality from empathy-induced altruism: When compassion and justic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042-1054.
- Batson, C. D., O'Quin, K., Fultz, J., Vanderplas, M., & Isen, A. (1983). Self-reported distress and empathy and egoistic versus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06-718.
- Batson, C. D., Sager, K., Garst, E., Kang M., Rubchinsky, K., & Dawson, K. (1997). Is empathy-induced helping due to self-other mer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95-509.

- Cialdini, R. B., Brown, S. L., Lewis, B. P., Luce, C., & Neuberg, S. L. (1997). Reinterpreting the empathy-altruism relationship: When one into one equals on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481-494.
- Coke, J. S., Batson, C. D., & McDavis, K. (1978).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A two-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52-766.
- Davis, M. H., Conklin, L., Smith, A., & Luce, C. (1996).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13-726.
- Davis, M. H., Soderlund, T., Cole, J., Gadol, E., Kute, M., Myers, M., & Weihing, J. (2004). Cognitions associated with attempts to empathize: How do we imagin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1625-1635.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Fehr, B. (2004). Intimacy expectations in same-sex friendships: A prototype interaction-patter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265-284.
- Galinsky, A. D., & Ku, G. (2004). The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on prejudice: The moderation role of self-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594-603.
- Galinsky, A. D., Ku, G., & Wang, C. S. (2005). Perspective taking and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 and Intergroup Relations, 8*, 109-124.
- Galinsky, A. D., & Moskowitz, G. B. (2000). Perspective-taking: Decreasing stereotype expression, stereotype accessibility, and in-group favori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08-724.
- Galinsky, A. D., Wang, C. S., & Ku, G. (2008). Perspective takers behave more stereotyp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404-419.
- Håkansson, J., & Montgomery, H. (2002). The role of action in empath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mpathizer and the target.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8*, 50-62.
- Hodges, S. D., Kiel, K. J., Kramer, A. D. I., Veach, D., & Villanueva, B. R. (2010). Giving birth to empathy: The effects of similar experience on empathic accuracy, empathic concern, and perceived empat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398-409.
- Hodges, S. D., & Wegner, D. (1997). Automatic and controlled empathy.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 (pp.311-33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Ickes, W. (1993). Empathic Accuracy. *Journal of Personality, 61*, 587-610.
- Kerem, E., Fishman, N., & Josselson, R. (2001). The experience of empathy in everyday relationships: Cognitive and affective elemen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709-729.
- Kim, H., & Markus, H.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85-800.
- Ku, G., Wang, C. S., & Galinsky, A. D. (2010). Perception through a perspective-taking lens: Differential effects on judgment and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792-798.
- Malle, B. F., & Pearce, G. E. (2001). Attention to behavioral events during interaction: Two actor-observer gaps and three attempts to close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 278-294.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Shah, J. (2003). Automatic for the people: How representations of significant others implicitly affect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61-681.
- Stinson, L., & Ickes, W. (1992). Empathic accuracy in the interactions of male friends versus male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87-797.
- Toi, M., & Batson, C. D. (1982). More evidence that empathy is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81-292.

1 차원고접수 : 2012. 10. 12.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5.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5.

The Role of Relationship Closeness and Expectance-Congruency in Empathy

Chan Park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ssumes that individuals possess concrete scripts regarding appropriate ways of empathizing with other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target. It further assumes that people utilize these scripts in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a particular mode of empathy in a given interpersonal setting. Based on a pilot study examining college students' lay theories of empathy associated with varying degrees of relational closeness, we identified the depth of empathy as a key determinant of the appropriateness judgment. We hypothesized that deep (shallow) levels of empathy and corresponding expressions by the empathizer would be considered appropriate in a close (distant) relationship (expectancy-congruent empathy). In contrast, we expected that shallow (deep) levels of empathy and corresponding expressions by the empathizer would be considered inappropriate in a close (distant) relationship (expectancy-incongruent empathy). Accordingly, we predicted that expectancy-congruent empathy would lead to higher level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than would expectancy-incongruent empathy. By manipulating the degree of relationship closeness with the target (close vs. distant) and the depth of empathy (deep vs. shallow), we found supportive evidence for our predictions both on the part of the target (Experiment 1) and the empathizer (Experiment 2).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ship closeness, empathy, expectancy-congruent empathy, relationship satisfaction, emotions

부 록

부록 I : A가 작성한 e-mail (실험 1)

안녕?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책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누군가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요즘 취업 때문에 다들 난리잖아. 주변에 보면 다들 영어시험 점수나 컴퓨터 자격증 따다고 준비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스터디 모임 같은 것도 하던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행복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 전공이 적성에 맞지도 잘 모르겠어. 당장 졸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학점 잘 받는 것은 기본이고, TOEIC이나 OPIc 같은 영어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들 다 하는 공모전도 지원하고, 어학연수도 한번 다녀오면 좋을텐데, 난 지금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되면 다들 자기소개서 쓰면서 엄청 힘들어한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도 딱히 의미 있는 기억도 없고, 뭔가 거창한 것도 없어서 마땅히 쓸 내용이 없어나봐. 나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지내다 보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딱히 쓸 내용이 없을 것 같아. 이래서 어디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라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지경이야. 내가 아직 철이 없는 걸까? 정말 너무 답답하다...

부록 II : A가 작성한 e-mail (실험 2)

안녕? 아무래도 너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 쓴다.

요즘 취업 때문에 다들 난리잖아. 주변에 보면 다들 영어시험 점수나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준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 당장 졸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막막하다.

TOEIC 같은 영어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남들 다 하는 공모전도 지원하고 컴퓨터 자격증도 한두 개 따놓으면 좋을 텐데, 난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에라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때문에 요즘 힘들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지경이야. 내가 아직 철이 없는 걸까? 정말 답답하다.

부록 III : B의 답장 (얕은 공감 조건)

안녕, e-mail 잘 받았어.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 읽고 나니까 고민하는 네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너의 상황이나 고민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지. 그래도 참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너의 입장이라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말이지.

하지만 혼자서만 생각하면 더 혼란스럽고 어려워질지도 몰라. 네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다보면 네 생각이 조금은 정리가 될 거야. 다음에 만나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해줄게. 내가 큰 힘이 돼주지는 못할 테고..... 이런 것이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주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더라. 너도 감기 조심하고, 혹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해-

부록 IV : B의 답장 (깊은 공감 조건)

안녕, e-mail 잘 받았어.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 읽고 나니까 고민하는 네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 사이에 네 고민은 곧 내 고민 아니겠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고민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 닿고, 마치 나의 고민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네가 요즘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니 내 마음도 많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더 힘이 돼주고 싶고.

네가 미처 하지 못한 말들도 있을 테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얘기도 들어보고, 나도 내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생각들을 너랑 같이 나누고 싶어. 이게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 역시 기쁠 것 같아. 넌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가 않을 테니까 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좋겠지. 편한 시간에 연락 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갈게!

요즘 일교차가 커서 주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더라. 너도 감기 조심하고, 혹시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해-